

故 이건희 회장 빈소 이틀째 추모 행렬 이어져

여야 지도부·재계 총수·경제단체장·주한 외국 대사 조문 발길 이낙연 대표 “혁신 리더십으로 국가 위상·국민 자존심 높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 이틀째인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삼성 전·현직 사장단을 시작으로 정부 장관들과 여야 지도부, 재계 총수·경제단체장, 주한 외국 대사들까지 다녀가며 종일 빈소가 북적이는 모습이다.

오전 9시께 이 회장 입관식이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당초 입관식은 원불교 관계자들의 입회 하에 원불교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 측은 원불교식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유족은 전날 이 회장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외부 조문·조화를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정·재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고 있다.

이날 첫 조문객은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었다. 이 회장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오전 9시 19분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진교영·박학규 사장 등도 속속 빈소에 도착했다.

이 회장의 조카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 회장과 오래 호흡을 맞췄던 권오현 삼성 고문, 삼성전자 사장 출신 황창규 KT 회장 등도 차례로 빈소를 찾

았다.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날 집중됐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다녀갔다.

이낙연 대표는 “고인께서는 혁신 리더십으로 국가 위상과 국민 자존심을 높여주셨다”며 “삼성이 더욱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지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 조영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일제히 발걸음을 뒀다.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일제히 빈소를 찾아 자국 정부의 애도를 전했다.

가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국내외 취재진이 200여명 이상 몰렸고,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 종일 장례식장 안팎이 북적이고 있다.

이날 중 흥남기 경제부총리, 김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장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등도 다녀갈 예정이다. 다른 주요 인사들도 조문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이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시작으로 정몽운 현대해상 회장, 정몽규 HDC 회장, 이재형 경기지사 등이 다녀갔다. 문재인 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보내 이 회장을 애도했다.

이 회장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28일 오전이다. 장지는 용인 선영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일본 강력 비판

김영록(사진) 전남지사는 26일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해 2022년 10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2018년 도쿄전력 자료를 인용해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 후 태평양에 방출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방사능으로 피폭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 제1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연안해역을 책임진 전남도지사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오염수 저장탱크를 땅속 깊이 묻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관련 준비를 중단하고, 자국 내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한민국과 주변국에게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나주시 공무원 2명 코로나19 확진...청사 일시 폐쇄

강인규 시장 등 공무원 100여명 자가격리...행정공백 우려

26일 나주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일부가 일시 폐쇄되고 민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과 함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00여명의 공무원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도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다. 나주시는 일자리 경제과가 있는 별관 건물 전체를 이날 하루 폐쇄하고 방역했다.

확진자 A씨와 접촉한 99명의 공직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와 함께 700명에 이르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이날 오후 5시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30대 남성 공무원 B씨의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확진자 A씨는 지난 14일 정오께 나주시 다도면 식당에서 서울 송파구 365번 확진자와 가까운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다. 둘은 테이블 2개가 있는 소

규모 식당에서 각각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들이 함께 머문 시간은 약 8분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만해도 확진자 A씨가 송파 365번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오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A씨와 B씨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등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A씨는 지난 17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주부터 발열과 감기 증상이 나타나 2차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 A씨 등과 지난 19일 점심을 먹은 강인규 나주시장은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 시장은 다음 달 2일까지 자가격리된다.

강 시장이 지난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전남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가를 중심으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 22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n@

전남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2명 늘어 총 8명

전국 59명...질병관리청 “인과관계 매우 낮아 접종 계속”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전남에서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전국에 걸쳐 59명까지 늘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보다 추진키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도내 8명으로 조사됐다.

담양과 보성에 각각 거주하는 80대 여성 2명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실이 보고됐다. 담양 거주 80대 여성은 지난 21일 예방 접종하고 25일 사망했다. 고혈압, 뇌종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보성 80대 여성의 경우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받았고 25일 사망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았다.

앞서 전남에서는 6명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목포 1명(90대 여성), 영암 1명(50대 여성), 순천 2명(모두 80대 남성), 여수 1명(70대 여성), 화순 1명(80대 여성)이다. 영암 50대 사망자를 제외하면 5명 모두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다. 영암 50대의 경우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1차 사망 원인이 뇌출

혈로 조사되면서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까지만해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모두 57건 보고됐다. 사망 8명, 발열 12명, 국소 이상 반응 9건, 알레르기 10명, 기타 18명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어났으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보다 계속 진행키로 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24일(48명)보다 11명 늘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와 80대가 각 26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이다. 60대 이상이 59명 중 54명(91.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8명, 서울 7명, 전북·경북 각 6명, 대구·경기 각 5명, 충남 3명,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명, 광주·제주 각 1명 등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이상 반응 신고는 총 1231건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국·인도 등 아시아 11개국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협력키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11개 나라가 아시아문화 연구조사와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유통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은 최근 ACC에서 열린 주한아시아국가 대사관협력회에서 각각 참석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아시아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신규 사업 발굴과 아시아문화 기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대사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아제르바이잔·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는 문화담당관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ACC는 아시아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2020 아시아문화주간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11개국 아시아국가대사관과 문화원 관계자를 초청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합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 하였고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 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담은농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승로 322-8동
청산인 김욱

상행안내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7일 전북 대둔산·돛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 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1월 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플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분할합병공고 (주권재출 및 채권자 이외제출)

주식회사 장유엔에이(이하 "장유엔에이" 또는 "회사")와 주식회사 세진엔에이(이하 "세진엔에이" 또는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 제53조제2항 이하에 규정하는 회사분할 합병 결의에 따라 "갑"의 재산(현금·부동산·채권·채무·유가증권·무형자산)을 분할하여 그 분할의 후속행위는 "을"의 발행주식15,000주 중 갑소과 "을"이 할당(합병되는 회사의 발행주식15,000주 중 갑소과 "을"은 존속하기로 함)으로, "갑"의 분할된 재산의 재산, 부채는 "갑"의 결산일에 관한 모든(리)에 관하여 "을"이 승계하며, 인사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합병결의서 및 합병 제53조제2항 제3항의 위키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금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며, 결산상업기본법 제83조의 2의 정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서 승인된 분할합병결의서 및 합병 제53조제2항 제3항의 위키 분할된 재산의 위키 분할된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승계하고, "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합병결의서의 내용을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분할합병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한다.

2020년 10월 27일
1. 분할합병대상 전액의 출자·유가증권상당금(2009-01-09)
2. (갑) 소 과 : 주식회사 장유엔에이
대표이사: 김형석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동 9-8
3. (을) 소 과 : 주식회사 세진엔에이(세진엔에이)
대표이사: 박용환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동 9-8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용환(570519-XXXXXX)
- 최종수신 : 광주 북구 자야길30번길 45(자야동)

피상속인 망 박용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2020년 단3632호, 상속포기 광주가정법원 2020년 단3631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과 미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한정 : 법원(890916-XXXXXX) 서울 강서구 화곡로277길 14, 402호 (화곡동, 동인레저빌)
- 상속포기 : 법원(910228-XXXXXX) 서울 금천구 남부순원로112길 1-8(가산동) 2020년 10월 27일

● 신고기간 : 2020. 10. 27. ~ 2021. 1. 5.
● 채권신고대상 : 상속인 법원현의 주소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